

우승컵 안기고 헤어질 결심



박항서 5년 베트남 감독 생활 고별 무대 ... "최강 지휘 확인" '동남아 월드컵' 13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 태국 1차전 대결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웃으면서 작별할 수 있을까.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13일 (이하 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베트남 하노이의 미단국립경기장에서 태국을 상대로 '동남아의 월드컵'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 결승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6일 오후 9시 30분 결승 2차전을 원정으로 치러 1·2차전 합계 점수로 우승팀을 가린다. 1, 2차전 합계 점수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을 치른다. 그래도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박 감독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베트남 지휘봉을 내려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결승전이 그의 고별 무대다. 동남아 중위권 팀으로 분류되던 베트남은 2017

년 9월 부임한 박 감독의 지휘 아래 이 지역의 강호로 급부상했다. '박항서호 베트남'이 명실상부 동남아 최강팀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는 2018년 스즈키컵(현 미쓰비시컵) 우승이다. 베트남에 1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안긴 박 감독은 '국민 영웅'의 지위를 굳건히 했다. 이후 베트남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진출하는 등 상승세를 제대로 탔다. 베트남이 월드컵 최종예선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 감독과 베트남은 이번 미쓰비시컵에서 우승해 '동남아 최강'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5년 동행을 끝마치려 한다. 박 감독은 인도네시아와 준결승 2차전 뒤 기자

회견에서 "베트남 선수들은 다른 동남아시아 팀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태국은 베트남이 동남아 최강이라는 평가에 고개를 찌른다. 태국은 미쓰비시컵 최다 6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동남아 전통의 강호다. 흥행력으로도 따지면 아시아 전체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자국 리그를 바탕으로 동남아 어떤 나라보다 축구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한 나라가 태국이다. 박항서호 베트남이 부상하기 전까지 태국이 동남아의 '1강'으로 군림했다. 사실 박항서호 출범 뒤에도 베트남이 태국에 확연하게 우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베트남은 지난해 열린 동남아시아(SEA) 게임에서 태국을 결승에서 꺾고 우승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U-23(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였다. A대표팀 간 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 박 감독 부임 뒤 베트남과 태국은 1승 3무 1패로 팽팽하다.

박항서호는 2019년 킹스컵 준결승에서 태국에 2-0으로 승리했을 뿐, 이후 4경기에서는 무승(3무 1패)에 그쳤다. 특히 2020년 스즈키컵 준결승에서 태국에 1-2차전 합계 0-2로 겨 대외 2연패에 실패하며 자존심에 크게 금이 간 바 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태국의 강점은 막강한 화력이다. 조별리그에서 참가 팀 중 최다인 13골을 몰아친 태국은 준결승전에서도 말레이시아에 3골을 퍼부었다. 대회 득점 랭킹 1위(6골)인 티라실 당다와 '조커'로 맹활약하는 아디샤 크라이손(2골)을 박항서호가 막지 못하면 4년 만의 챔피언 타이틀 탈환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대회 유일한 무실점 팀인 베트남은 한 차원 높은 수비조적력과 빠른 공격이 강점이다. 대회 득점 랭킹 2위에 올라있는 응우옌 티엔 린이 티라실을 제치고 득점왕으로 등극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유헤이와 재계약 "목표 달성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전남드래곤즈가 사토 유헤이(33·사진)와 2023년에도 함께 한다. 전남은 11일 "K리그에 완벽 적응한 미드필더 사토 유헤이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헤이는 지난 시즌 전남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도전에 나섰고 36경기에 나와 1득점 4도움을 기록했다.

완벽하게 K리그에 적응한 유헤이는 많은 활동량과 높은 패스 성공률로 전남의 중원을 책임졌다. 또한 비시즌에 팀 동료인 김현욱, 김태현, 최정원, 임찬율을 일본으로 초대하는 등 동료애도 보여줬다.

유헤이는 2013년 J1리그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 입단해 프로에 데뷔했으며 J2리그의 알비렉스 니가타(2015), 몬테디오 아미가타(2016-2017)를 거쳐 도쿄 베르디(2018-2021)에서 활약했다. J리그에서 9년간 239경기에 출전해 21득점, 33도움을 기록한 유헤이는 베테랑 선수다운 철저한 자기관리와 뛰어난 리더십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유헤이는 "전남과 재계약을 해 기쁘다. K리그를 경험했고 더욱 이해하고 있다. 지난 시즌 아쉬웠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잘 준비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 팀 떠나니... 맨유, 공식전 8연승



래시퍼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식전 8연승을 달리며 카라바오컵(리그컵) 4강에 안착했다.

맨유는 11일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2-2023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찰턴 애슬레틱(3부리그)을 3-0으로 대파했다.

이로써 맨유는 공식전 8연승을 이뤘다. 특히 구단과 마찰을 빚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살)가 출전하지 않은 지난달 11월 14일 풀럼과 EPL 16라운드부터 7연승을 달리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

호날두가 떠난 전방의 공백은 마커스 래시퍼드가 메우고 있다.

래시퍼드는 월드컵 휴식기 후 컵대회와 리그 등 6경기에서 7골로 폭발하고 있다.

이날 찰턴과 경기에서도 멀티 골을 터뜨리며 4강행에 앞장섰다.

전반 21분 프레드의 패스를 받은 안토니가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전매특허인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맨유의 선제골을 책임졌다.

경기 막판이 되자 골 맛을 보지 못했던 래시퍼드의 '득점 분봉'이 또 한 번 발휘됐다.

후반 45분 역습 중 파론도 펠리스트리외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은 래시퍼드는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차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래시퍼드는 종료 직전 추가 골도 터뜨렸다. 카세미루의 침투패스를 받고 페널티박스 안으로 질주한 래시퍼드는 왼발로 강하게 차 멀티 골을 완성했다.

8연승을 완성한 맨유는 오는 14일 EPL 20라운드에서 리그 2위(12승 3무 2패·승점 39)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는다. 맨유는 4위(11승 2무 4패·승점 35)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WBC 이강철호, 키스톤 콤비 향한 믿음... '땅꾼' 모은다

김하성-에드먼 최상급 수비 투수는 땅볼 유도 선수 선발

올해 3월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한국 야구대표팀 '이강철호'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KBO리그에서 땅볼 유도에 능한 '땅꾼'들을 집중적으로 선발한 것이 눈에 띈다. 땅볼 투수의 가장 큰 장점인 '장타 억제' 때문이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4위로 대회를 마감하며 노메달에 그쳤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은 장타 때문에 경기를 내졌다. 한국은 1회부터 두 방의 홈런을 얻어맞았고, 6-

5로 앞서가던 8회에는 2점 홈런을 다시 허용하며 6-10으로 역전패했다. 낮은 상대타율만으로는 국제대회는 많은 점수가 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럴 때 홈런 한 방은 치명타가 된다. 이강철호는 철저한 전력분석을 통해 WBC에서는 땅볼 투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투수 엔트리 15명 가운데 다수를 땅볼 투수로 채웠다. 지난 시즌 KBO리그 평균 땅볼 대 땅공 비율은 1.02였다. 땅볼이 살짝 많긴 했어도, 리그 전체적으로는 거의 1대 1 비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강철호에 승선한 투수들의 2022시즌 땅볼 대 땅공 비율은 1.23이다. 리그 평균과 비교하면 약 21%가량 땅볼 유도에

능한 선수로 선발한 것이다. 작년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 땅볼 대 땅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고영표(ki wiz)는 1.86이고, 그 뒤를 잇는 박세웅(롯데 자이언츠)도 1.76이다. 불펜 투수 정우영은 땅볼 아웃 100개에 땅공 아웃 22개로 땅볼 대 땅공 비율이 4.55나 된다. 김윤식(LG·1.48), 김원중(롯데·1.39) 등 처음으로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들의 발타 배경도 땅볼 대 땅공 비율에서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로 활약했던 김재윤(ki·0.55), 김재웅(키움 히어로즈·0.6) 등 이른바 '땅공 투수'가 고배를 마신 이유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땅볼을 유도해도 내야수가 이를 잡지 못하

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강철호가 자신 있게 땅볼 투수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건 역대 대표팀 가운데 최강으로 손꼽히는 내야진 덕분이다. 특히 유격수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2루수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결성한 키스톤 콤비는 전체 출전국 가운데서도 최상급 수비를 자랑한다. 에드먼은 MLB에서 최고의 수비수를 뽑는 골드 글러브 2루수 부문 2022시즌 수상자이며, 김하성은 지난해 아시아 출신 유격수로 최후로 골드 글러브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여기에 MLB에서도 안정적인 포구로 이름을 알린 1루수 최지민(피츠버그 파이리츠)과 KBO를 대표하는 3루수 최정(SSG 랜더스)이 지키는 핫코너도 든든하다. /연합뉴스

KIA, 투수 김건국·김승현, 내야수 김용완 영입

KIA타이거즈가 '무적 신분'인 투수 김건국(35)·김승현(31)과 내야수 김용완(20)을 영입했다. 김건국은 한서초-청량중-덕수고를 거쳐 2006년 두산에 입단했으며 NC와 KT, 롯데 등에서 5시즌을 뛰며 88경기에 나와 7승 5패 4홀드 평균자책점 4.57을 기록했다.

노암초-경포중-강릉고-건국대를 졸업한 김승현은 2016년 삼성에 입단했고 5시즌 동안 91경기에 출전, 2승 8패 4홀드 평균자책점 5.51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군 6경기에 나와 1패 2홀드를 기록했다. 김용완은 평촌초-평촌중-안산공고 출신으로 지



김건국 김승현 김용완
난해 2022년 롯데에 입단했다. 퓨처스 리그 76경기에 나온 김용완은 타율

0.236, 39안타 14타점의 성적을 냈다. KIA 관계자는 "김건국과 김승현은 중간계투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며 팀스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 김용완은 젊고 발이 빠른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향후 활용 폭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현은 지난 3월부터 합평 헬리콥터에서 훈련에 돌입했고, 김건국은 오는 16일, 김용완은 내달 1일부터 선수단에 합류해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